

민주, 北인권·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 對與공세

‘強與’ 표방 최경환 ‘黨 주도론’ 강공책

北인권법 청문회 수용·탈북청소년 國調 제안 경제민주화 관련 ‘을지로 위원회’ 활동 박차 (乙 지키려는 노력)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북 문제와 경제민주화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對)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북 문제 선도=민주당 홍의표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청문회 수용 의지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수용 결정 이유에 대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에서 남북관계가 저해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5·24조치 폐해기업과 금강산관광 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과 탈북청소년이 복송된 라오스 사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인식 아래, 탈북자 현황·탈북 루트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답보상태

에 있는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남북한 국회의원 회담을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문제가 해소될 실마리가 안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6·15 공동기념식까지 막아 참으로 유감”이라며 “더 이상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남북한 국회의원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인권에 대해 당에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춰졌던 모습을 지우면서 개성공단 문제 등 대북관계에 대해 여론보다 앞서가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우선 그동안 당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주도해온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 위원회’로 바꾸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중 16개 법안을 ‘을 지키기 법안’으로 정하고 최우선 통과를 다짐했다.
위원회의 이어 분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농심 특약점을 찾아 피

해사례를 들었다.
위원회는 오는 9일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대리점주·소상인 등이 모여 피해를 성토했고 대책을 논의하는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대표를 맡은 ‘경제민주화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정부 출범 100일, 경제민주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둔 과제에만 정책 자원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일관된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적 리더십과 경제민주화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각종 현안 정부 부실·늑장 대응 비판...적극 개입 시사

‘강한 여당’을 표방해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黨)이 주도하는 당·청 일체론을 들고 당·청 관계 재정립에 고삐를 죄고 있다.
새 정부의 순환을 위해 여당의 유기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각종 현안에서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불량부품으로 인한 ‘원전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철저한 사후 대책을 촉구한 것이나 밀양송전탑 논란을 증대하기 위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을 6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공공의료 국정조사’ 실시 결정도 국회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에 앞서 당과 반드시 사전협의하도록 한 점도

당 주도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 같은 ‘강한 여당’의 의지를 보여줬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100일간 정부가 허비한 시간은 뼈아프다”면서 “쓴소리”로 말문을 연 뒤 창조경제·원전비리·밀양송전탑·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일일이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부장관제 부활을 공개 제안했다.
당청관계 당 주도론의 성패는 최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의 이미지를 벗고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견제하는 집권여당의 원내사람탐으로 자리매김하느냐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야당이 충돌하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최 원내대표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준표 대통령 되려고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박지원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보수층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홍 지사의 꿈이 대통령이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위해 그런(진주의료원 폐쇄라는)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홍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이유 여부를 불분하고 국회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한다”며 “그 결과(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이정현 정부수석비서관을 신임 홍보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수석의 능력으로 박 적재적소에 갔다. 좋은 인사를 했다”고 호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진보정의당 중소기업인 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전국중소상인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이제는 일자리”...고용률 70% 총력

취임 100일 ‘시간제·창조경제·규제완화’ 적극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의 체감도가 가장 큰 일자리 부문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이제 박 대통령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라면서 “박 대통령은 ‘자나깨나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어느

부분보다도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3대(大) 축을 바탕으로 대선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시간제 일자리”라.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축은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창

이정현 ‘언론 스킨십’ 강화 ‘소통 청와대’ 시동거나

‘불통’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가 이정현 홍보수석의 등장과 함께 언론과 접촉 면을 확대하면서 ‘소통’의 청와대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수석은 임명 다음날인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을 찾았다. 전임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안이 있을 때만 춘추관을 찾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씻기도 해야 하고 청와대로 오면서 여러 가지 조율할 것도 많아 기자들의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새벽 시간 춘추관 지하 복도에서 출근한 기자들과 간단히 얘기하면서 언론이 청와대에 대해 궁금한 게 뭔지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뚝뚝 소통’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여기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장소가 너무 비좁다”는 등의 지적이 일자, 바로 뜻을 접었다. 대신 오

전 7시계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간이토크’를 하는 것으로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또 “새벽 간이 토크 외에도 언론과의 접촉은 매일 하겠다”면서 “내가 뒤편 대변인이 뒤편 오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번 씩 기자회견에 오고 오후 청와대 회의가 끝나고 또 한 번 기자회견에 들러 언론의 관심사에 대해 백 브리핑 형식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이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하기는 힘든 만큼 춘추관장실에 각 기자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질문지를 붙여놓으면 그걸 수거해 해당 기자분들에게 답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방법은 미국 백악관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홍보수석실 직원들은 기자들이 질문지를 붙일 수 있도록 즉각 계산관을 마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굿모닝 메디컬 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에 탄생합니다!
굿모닝 스포테인먼트 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